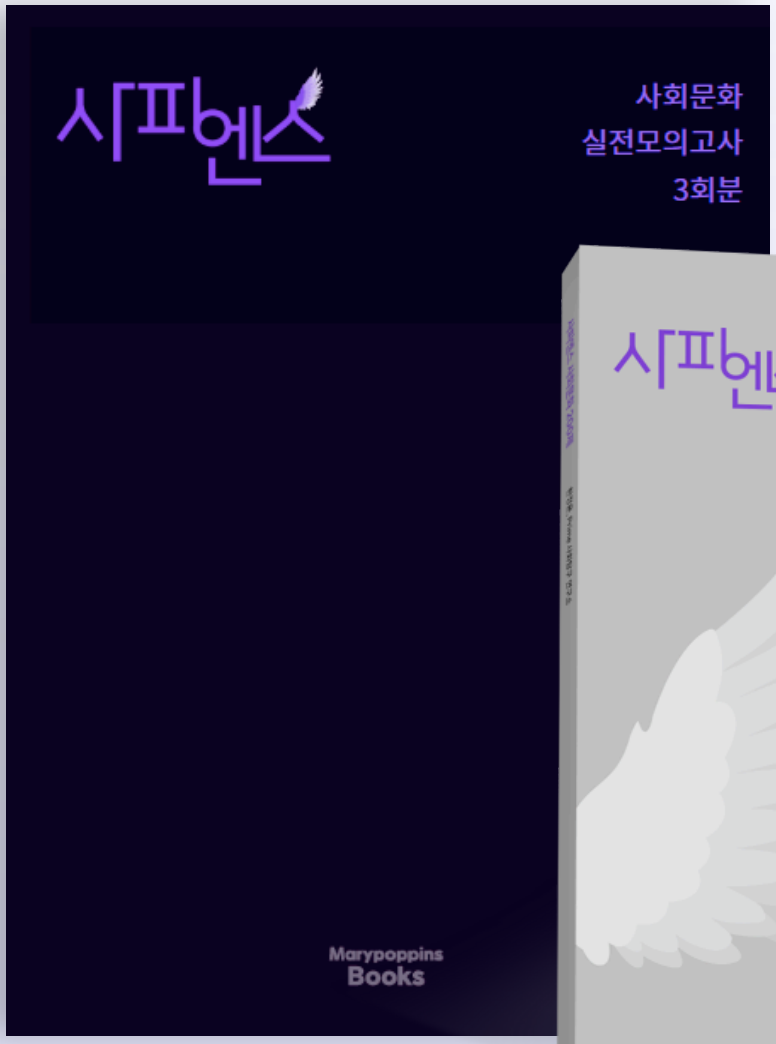
사회·문화, 사피엔스로
모래주머니 효과
그 이상을 누리다



사피엔스 모의고사 시즌1 (3회분)

사피엔스 200제

후기로 검증된 예리한 컨텐츠,
사피엔스에는 선택의 후회가 없습니다.

으아ㅏㅏ 1회 2회 퀄리티 너무너무 좋아요ㅠㅠㅠ
혹시 몇 회까지 계획에 있으실지요??
시중에 나와있는 그 어떤 실모보다 좋아요 ㅠㅠ

한 세트 한 세트 풀 때마다 수능 시험지 1,2,3...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문을 절대 놓으면 안 되겠다! 라는 교훈을 일깨워준 고마운 모의고사입니다.

이거 수능전까지 아껴서 풀고 싶을 정도에요ㅠㅠ 개념과 도표 모두 적절하고 근거 있는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난이도 조절과 참신한 유형으로, **모래주머니 효과를 느끼기에 아주 좋은 거 같아요.**

타임어택과 개념에 대한 심층적 물음을 모두 잡은 모의고사. **쉽게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도, 뒤돌아보면 선지 하나하나에 개념의 완전한 이해를 묻는 모의고사이다.** 특히 도표 문제에서마저 개념을 물으며 '사회문화'의 본질을 잡는 모습은 가히 완성에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다. 계산의 복잡함만을 추구하던 기존 모의고사들과 확연한 차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평가원 출제기조를 성실히 반영하면서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을 예리하게 파고듭니다.

※ 위 후기는 100%실제 독자 후기입니다.

Head-Master

사회문화 1등급 로드맵

*정식판매 종이책과, 양질의 무료자료로 반드시 최소비용으로 1등급을 만들어드립니다.
*형광펜 친 부분이 정식 판매책, 네모박스가 무료자료입니다. 두가지를 병행하여 1등급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설계 했습니다.

개념 학습

인강 추천 윤성훈T 불후의 명강 , 임정환 Lim it

독학서 추천 **Sapiens 사회·문화 개념서**(헤드마스터 무료 제공), 기출의 파급효과 사회·문화

기출 학습

문제집 추천 **마더텅, 자이스토리 등 '교육청 기출'까지 모두 포함한 기출 문제집을 활용하세요.**
(사회·문화는 많은 양의 문제 풀이가 필수적인 과목이기에, 교육청 기출에 대한 학습도 매우 중요함)

N제

안정적인 1등급을 위해서는, 최소 '500문항' 가량의 문제 풀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음

Level 1 **Headmaster Q150 N제** (헤드마스터 무료 제공) or **손고운T 전공자의 N제**
: 기출과 유사한 난이도의 실전 문제 학습을 통한 1등급 가능권의 실력 확보

Level 2 ⭐ **사피엔스 200제** (정식 종이책 판매)
: 기출 이상의 고난도 문제 학습을 통한 모래주머니 효과로 1등급을 넘어 만점 가능
최상위권의 실력 확보를 위한 필수 문제집

실전 모의고사

⭐ **사피엔스 모의고사** (정식 모의고사 판매)
: 실전과 가장 유사한, 그러면서도 높은 난이도를 갖춘 실전 모의고사 학습을 통한 실전 연습과 행동 영역의 마련, 빈출 유형과 신유형에 대한 학습

✓ **사피엔스 무료 제공 모의고사** (헤드마스터 무료제공 / 아래 목록)

1. 6평 대비 사피엔스 모의고사 1회
2. 9평 대비 사피엔스 모의고사 1회
3. 수능 대비 사피엔스 모의고사 1회
4. 교육청 우수 기출 문항 재배치 모의고사 3회

추가 자료 (헤드마스터 무료 자료)

✓ **헤드마스터 무료제공 자료**

1. 교육청이 알려주는 사회·문화 미출제 요소
2. 2026학년도 수능특강 사회·문화 분석서
3. 2026학년도 수능완성 사회·문화 분석서
4. 사회·문화 중요 선지 정리본

001

4min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중 하나임.)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자료 2> 갑국의 지역별 인구 중 (가), (나) 수급자 비율

(단위 : %)

구분	A 지역	B 지역	전체 지역
(가) 수급자	24	㉠	22
(나) 수급자	64	70	66
(가)와 (나) 중복 수급자	㉡	6	㉢

* 갑국은 A, B 지역으로만 구성됨.
** (가)와 (나)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가) 수급자 수는 A 지역과 B 지역이 동일함.

① ㉠은 ㉡보다 작고 ㉢보다 크다.
②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수는 A 지역이 B 지역의 3배이다.
③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B 지역 수급자 수는 그렇지 않은 제도의 갑국 전체 수급자 수보다 많다.
④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A 지역이 B 지역보다 높다.
⑤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를 제외한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전체 지역이 B 지역의 3배 이상이다.

002

2min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갑~병국의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갑~병국은 모두 계층을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하며, A~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다.

구분	갑국	을국	병국
A	10	25	30
B	60	50	20
C	30	25	50

① A가 상층이고 C가 중층이라면, 갑국과 을국의 계층 구조는 모두 피라미드형이다.
② B가 중층이고 C가 상층이라면, 병국의 계층 구조는 을국의 계층 구조와 달리 모래시계형이다.
③ 갑국의 계층 구조가 모래시계형이라면, 을국은 병국과 달리 하층 비율이 가장 높다.
④ 을국의 계층 구조가 다이아몬드형이라면, 상층 비율과 하층 비율의 합은 갑국과 병국이 동일하다.
⑤ 병국의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형이라면, 갑국은 을국과 달리 상층 비율이 가장 높다.

003

3min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갑국의 t+50년과 t+100년의 부양 인구는 t년의 2배이고, 노령화 지수는 t+100년이 150으로 t년의 6배, t+50년의 1.5배이다. 갑국 총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은 t년과 t+50년이 50%로 t+100년의 0.75배이다.
>
> $* \text{노년 부양비} = \d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 $** \text{유소년 부양비} = \dfrac{\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 $*** \text{노령화 지수} = \d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times 100$

① t+50년의 유소년 인구는 t년의 노년 인구와 같다.
② t+100년의 유소년 인구는 t년의 부양 인구의 0.5배이다.
③ t+50년의 노년 인구는 t년에 비해 400% 증가하였다.
④ 유소년 부양비는 t+50년이 t+100년의 2배이다.
⑤ 노년 부양비는 t+100년이 t년의 2배이다.

004

3min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갑국과 을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을국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이다. 단, 계층은 A, B, C로만 구분하고, A~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다.

<갑국>

구분		부모 세대		
		A	B	C
자녀 세대	A	■	□	□□□□
	B	□□	□□	□
	C	■	□□	■□□□

<을국>

구분		부모 세대		
		A	B	C
자녀 세대	A	□□□	□□□	■□□□□
	B	□□	□	□
	C	□□□□	□□	■□

* ■과 □는 해당 계층 사람의 수를 나타낸 것이며, ■가 나타내는 사람의 수는 □가 나타내는 사람의 수의 5배임.

① 갑국의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부모 세대 계층 구조와 달리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다.
② 갑국의 부모 세대 하층 인구수는 을국의 부모 세대 중층 인구수와 같다.
③ 갑국과 달리 을국에서 자녀 세대 인구 대비 계층 대물림 인구 비는 상~하층 중 중층이 가장 높다.
④ 갑국에서 부모가 중층인 자녀 세대 상층 인구는 을국에서 부모가 상층인 자녀 세대 중층 인구와 같다.
⑤ 을국에서 부모가 하층인 자녀 세대 중층 인구는 갑국에서 부모가 중층인 자녀 세대 하층 인구와 같다.

005

3min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A는 B와 달리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이다. <자료>는 갑국 각 지역의 연도별 A, B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 갑국의 t년과 t+20년 전체 인구는 서로 같다.

(단위 : %)

구분		A 수급자	B 수급자
t년	(가) 지역	42.8	12.5
	(나) 지역	44.0	13.5
	갑국 전체	43.4	13.0
t+20년	(가) 지역	48.0	15.2
	(나) 지역	50.0	16.2
	갑국 전체	49.6	16.0

* 갑국은 (가), (나) 지역으로만 구성됨.

<보 기>

ㄱ.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가) 지역 수급자 수는 t년이 t+20년보다 적다.
ㄴ.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나) 지역 수급자 수는 t+20년이 t년보다 많다.
ㄷ.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t년 (가) 지역 수급자 수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t+20년 (나) 지역 수급자 수의 2배보다 많다.
ㄹ. 선별적 복자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t+20년 (가) 지역 수급자 수는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t년 (나) 지역 수급자 수의 0.2배보다 적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006

4min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국에서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30년이 20%로 t년의 2배이고, 노령화 지수는 t+30년이 t+60년의 1.5배이다.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t년과 t+60년이 t+30년의 0.8배이다. 표는 갑국의 연도별 유소년 부양비를 나타낸 것이다.

구분	t년	t+30년	t+60년
유소년 부양비	50	20	25

$$* \text{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text{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text{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times 100$$

① t년 대비 t+30년에 전체 인구는 20% 증가하였다.
② 유소년 인구와 부양 인구의 합은 t+60년이 t년보다 많다.
③ 노년 부양비는 t+30년이 t년의 2배이다.
④ 노령화 지수는 t+60년이 t년의 4배이다.
⑤ t+30년 부양 인구는 t년 전체 인구보다 많다.

007

4min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A와 B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A는 B와 달리 수급 대상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료>는 갑국의 지역별 수급자 현황의 일부이다. 단, B 수급자 수 중 A 비(非)수급자 수의 비율은 (가) 지역이 80%, (나) 지역이 90%이고 중복 수급자 수는 (가) 지역과 (나) 지역이 같다.

(단위 : %)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A 또는 B 수급자 비율	64	72
A 수급자 비율	24	18

* 중복 수급자 = A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B 수급자인 사람

①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높다.
② 중복 수급자 비율은 (가) 지역이 (나) 지역의 2배이다.
③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가) 지역이 (나) 지역의 0.7배이다.
④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나) 지역이 (가) 지역의 2.4배이다.
⑤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가) 지역이 (나) 지역의 0.6배이다.

008

3min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갑국과 을국의 인구 구조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t년 대비 t+40년에 갑국의 전체 인구는 20% 증가하였고, 을국의 전체 인구는 50% 증가하였다. 단, t년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

구분	t년		t+40년	
	갑국	을국	갑국	을국
부양 인구 비율(%)	50	60	60	50
노령화 지수	25	100	300	400

* 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times 100$

① t년에 갑국의 유소년 인구는 을국의 노년 인구의 3배이다.
② t+40년에 을국의 부양 인구는 갑국의 유소년 인구의 5배이다.
③ t년에 갑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t+40년에 을국의 노년 부양비와 같다.
④ t+40년에 을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t년에 갑국의 노년 부양비의 2배이다.
⑤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갑국과 을국 모두 t+40년이 t년보다 많다.

009

1min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표는 갑~병국의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B에서 A로의 이동과 A에서 C로의 이동은 모두 상승 이동이며, 갑~병국의 전체 인구는 모두 동일하다.

(단위 : %)

구분	갑국	을국	병국
A	60	10	30
B	20	40	50
C	20	50	20

<보 기>

ㄱ. 갑국의 상층 인구와 하층 인구는 동일하다.
ㄴ. 을국의 상층 인구와 병국의 중층 인구는 동일하다.
ㄷ. 갑국에서는 을국과 달리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ㄹ. 을국에서는 병국과 달리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10

5min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며, 제시된 기간 동안 인구 변동은 없음)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나) 노령, 장애, 사망 시 본인 및 가족에게 연금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자료 2> 갑국의 (가), (나) 제도 수급 진입 비율과 수급 이탈 비율

(단위 : %)

구분	(가) 제도		(나) 제도	
	t+1년	t+2년	t+1년	t+2년
수급 진입 비율	20	5	30	20
수급 이탈 비율	40	50	10	40

* t년 갑국의 전체 인구 중 (가)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15%, (나)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30%임.
** 수급 진입 비율(%) = (직전 연도와 달리 혜택을 받게 된 해당 제도 수급자 수 / 직전 연도 해당 제도 비(非) 수급자 수) × 100
*** 수급 진입 비율(%) = (직전 연도와 달리 혜택을 받지 않게 된 해당 제도 비(非)수급자 수 / 직전 연도 해당 제도 수급자 수) × 100

①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t+2년이 t년보다 낮다.
②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비(非)수급자 비율은 t+1년이 t+2년보다 높다.
③ 직전 연도와 달리 해당 연도에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비(非)수급자가 된 사람 수는 t+2년이 t+1년의 2배이다.
④ 직전 연도와 달리 해당 연도에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가 된 사람 수는 t+1년이 t+2년보다 많다.
⑤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와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의 합은 t년부터 t+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011

3min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다음은 ○○국 시기별 계층 구성 비율의 비와 연령이 50대인 갑~무의 사회 이동 결과를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단, 세대 간 이동은 부모 계층과 본인의 현재 계층 비교로, 세대 내 이동은 본인의 25년 전 계층과 현재 계층 비교로 판단한다. A~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다.

<자료 1> 시기별 계층 구성 비율의 비

구분	t-50년	t-25년	t년
$\frac{B}{A+C}$	$\frac{1}{9}$	$\frac{3}{7}$	$\frac{3}{7}$
$\frac{C}{A}$	2	$\frac{5}{2}$	$\frac{2}{5}$

<자료 2> 갑~무의 사회 이동 결과

구분		부모 계층 (t-50년)		
		A	B	C
본인의 현재 계층 (t년)	A	갑	병	
	B	을		정
	C		무	

구분		본인의 25년 전 계층 (t-25년)		
		A	B	C
본인의 현재 계층 (t년)	A	병	갑	
	B	정	을	
	C			무

* t-50년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를 가짐.

① t-25년 중층 비율은 t년 하층 비율의 2.5배이다.
② t-25년은 다이아몬드형, t년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이다.
③ 갑은 세대 내 하강 이동을, 을은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하였다.
④ 병은 세대 간 하강 이동을, 정은 세대 내 하강 이동을 하였다.
⑤ 무는 세대 내 이동과 달리 세대 간 이동에서 하강 이동을 하였다.

012

3min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현재(t년) 갑국은 표와 같은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다. 갑국 정부는 향후(t+100년) 발생할 인구 변화를 서로 다른 시나리오로 예측하여 A, B의 결과를 얻었다. t년과 t+100년에 부양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며, t년 대비 t+100년에 전체 인구의 증가율은 50%라고 가정한다.

구분	현재(t년)	t+100년의 시나리오 예측 결과	
		A	B
노년 부양비	50	t년 대비 ㉠% 감소	t년 대비 60% 증가
노령화 지수	100	t년 대비 75% 감소	t년 대비 ㉡% 증가

$$* \text{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text{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text{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times 100$$

① ㉡에 들어갈 값은 ㉠에 들어갈 값의 4배이다.
② 노년 인구는 현재가 A의 1.5배이다.
③ 유소년 인구는 현재가 B의 2배이다.
④ 유소년 부양비는 A가 B의 5배이다.
⑤ 부양 인구와 유소년 인구의 합은 A가 B의 1.5배이다.

013

4min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임.)

표는 갑국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계층 이동의 결과로 형성된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부모 세대에서 부부의 계층은 동일하고, 모든 부모의 자녀는 1명씩이다. 단, 부모 세대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이며, 부모가 상층인 자녀 중 세대 간 이동 거리가 1인 자녀 인구와 2인 자녀 인구는 동일하다.

A	B	C
□□□□⊠■	□□□⊠■■	□□□□□⊠⊠⊠

* 네모(□, ⊠, ■)는 사람의 수를 나타낸 것이며, 네모 한 개가 나타내는 사람의 수는 동일함.
** □는 세대 간 이동 거리가 0, ⊠는 세대 간 이동 거리가 1, ■는 세대 간 이동 거리가 2인 사람을 나타냄.
*** 세대 간 이동 거리는 동일 계층 간에는 0, 상층과 중층, 중층과 하층 간에는 1이고 상층과 하층 간에는 2임.

① 부모 세대 중층 비율은 자녀 세대 상층 비율과 같다.
② 자녀 세대 하층 비율은 부모 세대 상층 비율과 같다.
③ 상승 이동한 자녀 세대 상층 인구는 하강 이동한 자녀 세대 하층 인구와 동일하다.
④ 상승 이동한 자녀 세대 중층 인구는 하강 이동한 자녀 세대 중층 인구와 동일하다.
⑤ 부모 세대 계층 인구 대비 계층을 대물림한 자녀 세대 계층 인구의 비는 중층이 가장 크고, 하층이 가장 작다.

014

3min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함.)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나) 상담, 재활, 돌봄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다)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자료 2> 갑국의 (가)~(다) 제도 지역별 수급자 비율

(단위 : %)

구분	A 지역	B 지역	갑국
(가)	18	㉠	20
(나)	14	8	10
(다)	㉡	6	7

* 해당 지역 수급자 비율 = (해당 지역 수급자 수 / 해당 지역 인구) × 100

① ㉠은 ㉡의 2배이다.
②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A 지역 수급자 수는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B 지역 수급자 수와 같다.
③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제도의 A 지역 수급자 수는 B 지역 수급자 수보다 많다.
④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B 지역 수급자 수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A 지역 수급자 수의 4배보다 많다.
⑤ 비금전적 지원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갑국 전체 수급자 수는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A 지역 수급자 수보다 적다.

015

3min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갑국의 인구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t년에 비해 t+50년 갑국의 부양 인구는 20% 증가하였다. 갑국의 노년 부양비는 t년에 25, t+50년에 60이다. 단, 음영 처리된 부분은 주어진 자료와 단서를 통해 알 수 있다.

(단위 : %)

구분	t년	t+50년
65세 이상 인구(노년 인구)		30
15~64세 인구(부양 인구)		
0~14세 인구(유소년 인구)	25	

* 노령화 지수 = (노년 인구 / 유소년 인구) × 100
** 유소년 부양비 = (유소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노년 부양비 = (노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총부양비 = {(유소년 인구 + 노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① t년 부양 인구는 t+50년 노년 인구와 같다.
② t+50년 유소년 인구는 t년 노년 인구와 같다.
③ 노령화 지수는 t+50년이 t년의 2배이다.
④ 총부양비는 t년과 t+50년이 같다.
⑤ 유소년 부양비는 t+50년이 t년보다 작다.

1~5회 정답

1회					
001	③	002	③	003	③
2회					
004	⑤	005	③	006	②
3회					
007	③	008	③	009	②
4회					
010	④	011	⑤	012	⑤
5회					
013	⑤	014	④	015	⑤